

목포시, 시민 위한 '적극행정 실현' 나섰다

제도 활성화 등 5개 추진 과제 혁신본부장, 전담부서 지정도 우수공무원 선발 및 교육 실시 "시민 만족 높이는 행정 집행"

목포시가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을 웃게 하는 행정으로 희망찬 목포만들기'를 비전으로 적극행정 실행을 위한 5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5개 추진 과제는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위한 △적극행정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이다.

시는 적극행정에 힘을 싣고 5개 추진과제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장을 혁신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기획예산과를 전담부서로 지정, 감사실·자치행정과의 협업을 통해 책임감 있게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목포사랑 시민대학 운영, 복지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선정해 특별관리하고 지원한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공무원 선발과 교육은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시 산하 9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



2025년 목포시 적극행정 위원회. 지난 21일 목포시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목포시 제공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서는 소극행정 예방교육 및 예방지침서를 배포하고 타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해 적극행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목포시 적극행정 위원회 회의는 오래 목포시 적극행정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였다"며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시민과의 소통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중점과제를 관리해 시민 만족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거주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무안군은 영농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2025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오는 12월 말까지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매년 경작 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이 산불 발생 위험 증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으로 농촌의 불법소각 행위를 방지해 산불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을 줄여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4개조, 12명으로 운영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에서 마을별로 직접 해당 농지를 방문, 파쇄를 진행한다.

최광재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불법 소각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지난해 29농가 22ha에 대해 영농부산물을 수거·처리한 바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C형간염' 국가검진 검사비 지원 해남군, 올해 56세 대상

해남군이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및 양성자 검사비 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해당하는 군민들이 반드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C형간염 항체검사 및 양성자 검사비 지원 대상은 56세(1969년생)가 된 군민으로,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자의 경우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관내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은 해남한국병원, 복음내과의원, 김만중내과의원 등 3곳이다.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는 확진검사 비용(최초 1회)이 지원되며 검사비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C형간염은 예방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만큼 올해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꼭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1회당 3만원 연간 최대 10회

무안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난임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1회당 3만원의 교통비를 연간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위해 관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이다. 신청은 시술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보건소(061-450-4686)에 문의하거나 무안군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치료를 원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실시 완도군, 19명 신규 채용

완도군은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지방공무원 1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용 직급은 9급이며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은 속기 1명, 해양 수산(일반 수산) 4명, 보건 2명, 의료 기술(치위생, 물리 치료) 2명, 시설(일반 토목) 5명, 시설(건축) 5명이다.

군은 조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인성·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있다.

인·적성 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직무 성향과 조직 적응력, 공직자로서의 의식과 친절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면접시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원서 접수 일정은 오는 3월3일부터 10일까지이며 15일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은 이번 경력경쟁시험 외에도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46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결원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지도자회와 새마을부녀회들이 지난 21일 일로전통시장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지도자·부녀회, 환경 정비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지도자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21일 장날을 맞아 일로전통시장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날 100여명의 회원들은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로전통시장 주변에 떨어진 생활 쓰레기, 담배꽂초 등

을 수거하며 깨끗한 전통시장 만들기에도 앞장섰다. 김계태 새마을지도자회장은 "일로전통 시장이 인근 지역민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운 날씨지만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일로읍장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도 시간 내 환경정비에 참여해 주신 일로읍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일로읍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 귀농·귀촌 체험 참가자 모집

청계면 월선체험휴양마을 일원

무안군은 '2025년 전남에서 살아가기 프로그램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에서 살아가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3개월간 무안군 청계면 월선체험휴양마을에서 농촌 이해, 지역 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균형 잡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월 15

회 이상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원된다.

모집 인원은 총 5팀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타 지역 거주 도시민이다. 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20일까지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승헌 무안군 인구정책과장은 "전남에서 살아보기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안의 매력을 발견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우리 군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